

‘중국몽(中國夢)’과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

– 방향과 그 동인

주 장 환**

<목 차>

1. 서론
2. 중국몽의 제기: 배경과 내용
 - 2.1 중국몽 제기의 배경
 - 2.2 중국몽의 내용
3. 중국몽과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
 - 3.1 중국몽 제출 이전 지식인 담론 지형의 특징
 - 3.2 중국몽 제출 이후 지식인 담론 지형의 특징
4. 결론

1. 서론

2012년 시진핑(習近平)은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그 이후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재 선출되고, 집권 2기를 시작한 2018년 초반까지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그의 권력 공고화는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 동시에 상대적으로 더욱 그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joojh@hs.ac.kr)

1) Fewsmith, Joseph, 2018, "The 19th Party Congress: Ringing in Xi Jinping's New Age," <https://www.hoover.org/sites/default/files/research/docs/clm55-jf-final.pdf> (검색일: 2018.04.19).

자유화 정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즉 다소 도식화의 오류를 감수한다면, 시진핑 체제의 공고화는 중국의 자유화의 후퇴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

기실 시간을 거슬러 2012년과 2013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현상의 도래는 이미 예견되었다. 2012년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중국과 세계에 던진 담론은 바로 '중국몽'이었다. 중국인과 세계의 중국 전문가들은 모두 알만한 중국 역사의 부침에 대한 열거와 부흥을 설파한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중화 내지 중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시도는 이전 시기에도 있어왔다. 굳이 이전의 인식과 차별성을 말하자면, 중국 관방 레토릭 특유의 기념비적인 년도에 대응되는 목표의 구체적인 제시가 있었다는 점이다.³⁾

따라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보였던 또 매우 흔한 담론에 불과했던 중국몽에 대한 강조와 제기가 5년 뒤에는 이론화 및 세련화되어 헌법에 기재된 '시진핑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習近平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과 아이디어로써 평가되고 있다.⁴⁾ 또 시진핑 본격 집권 1년차였던 2013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배포한 문건 '현 시기 이데올로기 영역 상황에 대한 통보(關於當前意識形態領域情況的通報)'(이하 줄여서 '2013년 통보')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대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요지는 명확한 反 서방, 反 자유주의였다.⁵⁾ 물론 이에 대해 2012년 보시라이(薄熙來)

2) 실례로, Freedom house에서 공포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이 아닌란 총점을 기준으로 결과를 발표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의 중국의 자유 지수는 각각 17, 16, 15, 14로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Freedom House(www.freedomhouse.org)의 각 연도별 보고서를 참조바람.

3) 李斌, 2012, “習近平：承前啓後 繼往開來 繼續朝著中華民族偉大復興目標奮勇前進,”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2-11/29/c_113852724.htm (검색일: 2018.06.10).

4) 崔海教, 2018,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的理論威力,” http://www.qstheory.cn/dukan/qs/2018-04/15/c_1122670078.htm (검색일: 2018.06.10).

5) 陳曦, 2013, “《明鏡月刊》獨家全文刊發中共9號文件,” http://www.molihua.org/2013/08/9_7925.html (검색일: 2018.06.10).

사건 직후의 중국 공산당의 좌경 경향에 대해 표시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근거로, 좌와 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전형적인 행보라는 평가도 있었다.⁶⁾ 그러나 그 이후 중국 공산당의 행보까지를 종합해서 고려하면, 시진핑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일정한 좌편향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과 함께 제기된 중국몽이 중국 지식인의 담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식인들의 정치 사조 내지 담론 지형의 측면에서 시진핑 체제 중국의 실재(實在) 파악 과정의 하나의 부분 퍼즐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연구는 중국몽이라는 ‘기획된’ 담론 프로젝트가 독립변수으로써 종속변수인 지식인 담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몽은 어떤 배경과 특성을 가진 정치 담론인지? 또 어떻게 중국 지식인의 정치 담론의 지형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동인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전제로써 밝혀둘 것은 현재 중국 지식인 담론의 지형은 공산당이나 정부 일방이 아닌 이들과 지식인 사회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식인은 그 개념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생성 이후 줄곧 한 국가의 다양한 변화의 목소리를 한편으로는 대변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해 왔다.⁷⁾ 기실 당-국가체제의 유지로 인해 사회부문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 사회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인은 점차 독립적인 사회계층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이들 내부의 이익 다원화의 결과로써 비교적 다양한 정치 사조들이 출현하기도 했다.⁸⁾ 따라서 그 비중

6) 이남주, 2018, “중국의 ‘좌우논쟁(左右之爭)’과 시진핑체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9777> (검색일: 2018.06.10).

7) 지식인 개념의 상이성과 그 역사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홍태영,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지식인 - 집단지성 시대 지식인의 새로운 상을 위하여>, 《현대정치연구》 6권 1호, 2013, 205-210쪽을 참조 바람.

8) 개혁·개방 이후 시기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그 내용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양호,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3권 1호, 2004, 221-248쪽을 참조 바람.

은 다른 국가들과 일정한 차별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중국의 지식인 담론의 장은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교차와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대한 분석과 중국 지식인 담론의 장에서 활동하는 이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사실감과 생동감을 높인다.

제 2장에서는 중국몽이라는 담론 제기의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 규명한다. 제 3장에서는 이 담론의 제기 이후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지식인 담론 지형을 중국몽 제출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그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중국몽의 제기: 배경과 그 내용

2.1 중국몽 제기의 배경

2012년에 시작한 시진핑 체제는 2017년에 집권 2기로 들어섰다. 2012년 집권과 함께 함께 그가 최초로 제기한 주장이 있다. 바로 중국몽이다. 원래 위대했던 중화민족의 재도약 즉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은 집권 1기를 거쳐 2기에 들어서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대표적인 적인 예가 바로, 중화민족 부흥의 시간표이다. 즉 2012년 최초 제기 시에 시진핑은 2021년 중진국 수준인 샤오강(小康)사회의 완성 그리고 2049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완성이라는 중국몽의 달성 시간표를 제출했다.⁹⁾ 한편 2017년에 그는 2021년에서 2049년 사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두 단계로 나누었다. 2035년까지를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으로 실현하자고 주장했다.¹⁰⁾

9) 劉瓊, “習近平總書記深情闡述‘中國夢’”, 2012.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2-11/30/c_124026690.htm

(검색일: 2017.02.21).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이 어찌 보면 다소 식상할 수 있는 중국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을까? 또 이를 중심으로 그의 국정 통치 이데올로기를 구성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국내적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1990년 이후 진행된 중국 당국의 민족주의화 경향의 자연스러운 귀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체제와의 차별성 부각의 필요성이다. 전자는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적 경향의 귀결태라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에서의 민족주의는 공산당의 애국주의 교육 운동의 전개와 지식인 사회에서의 서방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경제 성장과 국력 신장에 따른 국민들의 자신감 증대와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성장했다. 반면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꾸준히 쇠퇴했고, 따라서 민족주의는 이를 대체할 유력한 이데올로기로 부상했다.¹¹⁾ 이 점을 시진핑 체제는 간과하고 통치 이데올로기로써 전면적으로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자는 이전 최고 지도자와의 차별성 부각의 차원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기에 공산당 내의 최고 지도자의 교체가 사실상 대부분 국가의 정권 교체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듯 역대 최고 지도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국정이념을 내세워왔다.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총강에 기재되어 있는 마오쩌둥 사상(毛澤東思想), 덩샤오핑 이론(鄧小平理論), 세 개의 대표 중요사상(三個代表重要思想),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앞의 두 개는 그것들을 공식 주창한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 들어갔고, 뒤의 두 개는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기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이들 개인 혹은 집단의 시대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반응적 인식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 시

10)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17,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검색일: 2018.02.28).

11)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희우, <중국민족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중국학연구》 47호, 2009, 153-186쪽을 참조 바람.

기의 집권 체제의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의미한다.¹²⁾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몽은 특히 경제 성장률 하락, 과잉생산, 국가 및 기업 부채 급상승, 부동산, 버블, 기업에 대한 높은 세금, 빈부 격차의 확대 심화 등 문제의 극복의 방향을 중국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전통적 핵심 가치와 담론들을 중심으로 잡겠다는 인식과 방향의 추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즉 예를 들어 직전의 지도 체제 즉 후진타오 체제는 이런 개혁·개방 정책 성공의 부작용에 대해 보다 '보편적인' 접근을 진행했다면, 시진핑 체제는 보다 '특수성을 강조한' 해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둘째, 물론 상술한 내용과 연동되지만 특히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불가피한 미국 등 기존 강대국의 견제가 노골화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 일본과의 도서 분쟁 등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은 기존의 수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개념의 제출과 대대적인 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적극적이라는 점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 체제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와 압박에 대한 반응(action)에 대한 재반응(re-action)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핵심 이익의 강조, 신형대국관계론의 제시,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들 정책과 기조들은, 중국의 공격적·팽창적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 들 이라기보다, 기실 기존 강대국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즉 미국 등 기존 강대국에게 중국의 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국외교를 구축해야 하며,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미국과 일본이 중국 동쪽으로부터의 봉쇄에 대해 맞대응

12) Bo, Zhiyue, "Hu Jintao and the CCP's Ideology: A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9, No. 2, 2004), p. 27.

13)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58권 1호, 2018, 102쪽.

보다는 서진(西進)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¹⁴⁾ 다만 그 방식과 기조가 중국 당국의 표현대로 '주동진취(主動進取)'와 '적극진취(積極進取)'화 한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 시기 중국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고, 기존의 도광양晦(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에서 탈피한다는 것이다.¹⁵⁾ 이렇게 봤을 때, 중국몽 개념의 제기는 2012년 당시 중국 집권층의 대내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의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2.2 중국몽의 내용

우선 중국몽 담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시진핑의 표현에 따르면, 이 개념의 중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20년까지의 단기적인 시기 내에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49년까지의 장기적인 시기 내에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하는 것이다.¹⁶⁾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진핑의 중국몽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이다. 즉 단기적인 2020년까지의 목표인 전면적 샤오강 사회의 건설은 이전 체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후진타오 체제의 산물이다. 주지하다시피, 2012년 제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가계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의 달성이 곧 '전면적 샤오강' 사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이를 위한 지도사상으로 과학적 발전

14) 주장환,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서진 전략의 배경, 내용, 전망>, 《한중사회과학 연구》 제12권 제3호, 2014, 51-52쪽.

15) 황재호, <신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협력>, 《전략연구》 제21권 제4호, 2014, 12쪽.

16) 劉瓊, "特寫: 習近平九提"中國夢," 2013,

<http://theory.people.com.cn/n/2013/0320/c49150-20851599.html>

(2018년 1월 10일 검색).

관을 내세우면서, 경제 발전 방식과 경제구조조정의 가속화와 민생 보장 및 개선의 지침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기존 성장 위주의 개혁·개방 노선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⁷⁾ 즉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은 기존의 개혁·개방노선이 아닌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새로운 전략과 노선에 의해 실현될 목표이고, 따라서 이는 이전 후진타오 체제의 유산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로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 이전 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적 발전관 보다는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더욱 강조했었다.¹⁸⁾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이 중국몽의 단기적 목표이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간 것은 중국 정치의 정책과 노선의 연속성 유지 메커니즘의 차원에서 그 이해가 가능하다. 즉 개혁·개방 시기 이후 중국 정치에서는 의도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교체와 정책 노선의 그것을 엇갈리게 배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 역시도 그 자신의 국정 지도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데 일정하게 이전 체제의 유산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2017년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도사상으로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전히 이전 덩샤오핑, 장쩌민 특히 후진타오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유산으로부터 완전한 탈피라기보다는 그 연장선 속에서 이 새로운 지도사상의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는 의미이다.¹⁹⁾

한편 이런 맥락에서 중국몽에서의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2049년까지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그리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구체적 내용이자,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다라는 주장이다. 이 목표

17) 지만수, <중국의 과학적 발전관의 내용과 함의>, 《아태연구》 제15권 제1호, 2008, 73-89쪽.

18) 이종화, <시진핑의 중국의 꿈과 과학적 발전관의 미래발전>, 《중국과 중국학》 제23호, 2014, 112-113쪽.

19) 주장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3호, 2018, 192-193쪽.

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논리적으로 중국몽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을 의미한다. 부강, 민주, 문명 그리고 조화라는 의미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일종의 수식어이다. 즉 2049년에 도달할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이고 이 국가는 상기한 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은, 2017년에 공식 제기되고 당의 지도사상으로 삼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르면, 사실상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즉 중국몽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발전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몽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중국 공산당)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중국몽의 구체적인 특징을 규정하는 부강, 민주, 문명 그리고 조화라는 개념은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들 특징 중 부강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고, 그 방향성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어떤 민주, 문명 그리고 조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내용은 제시하기 보다는 '중국식'이라는 수식어로 치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특징 중 '부강'만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시진핑이 밝혔듯이 중국몽은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의 내재적 의미이며, 부화 힘의 증진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²¹⁾ 기실 이 점 때문에 국내적 차원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과 지위 그리고 국민들의 결속력을 제고시킨다는 효과 외에 국외적 차원에서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차단에는 이 개념의 제기 초기부터 그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했다.²²⁾ 실제로 이러한 중

20) 여기서 '중국식'이라는 의미는 생산력이 미발전된 상태에서 생산관계의 우선적 변화를 시도하여, 미발달한 사회주의 단계라는 과도기를 불가피하게 설정했다는 것임.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진영, 《21세기 중국 정치》(폴리테이아, 2008), 374-375쪽을 참조 바람.

21) Ferdinand, Peter, "Westward Ho-the China Dream and 'One Belt, One Road': Chinese Foreign Policy under Xi Jinping," *International Affairs* (Vol.92, No.4, 2016), p. 946.

22) Wang, Zheng, "The Chinese Dream: Concept and Context," *Journal of Chinese*

국몽이라는 국정 지도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구체적인 대외 정책은 대표적으로 중미관계, 한중관계 그리고 일대일로 사업 등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²³⁾

정리하자면, 중국몽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그 균열이 확대된 사회 통합 정도와 집권 세력의 정당성 제고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기획된 중국 공산당의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 캠페인이다. 즉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이자 이를 실현할 일련의 '정치 공작 (political work)'의 도구인 셈이다. 그 방식은 이미 존재하던 병에다가 새로운 술을 담는 것이었다. 즉 여기에서 이미 존재하던 병은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근현대에 대한 기억 즉 민족적 쇠락에 대한 치욕과 부흥에 대한 희망 정서를 가리킨다. 또 새로운 술이라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시기의 집권 플랜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다분히 전체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며, 대외보다는 대내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몽과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

3.1 중국몽 제출 이전 지식인 담론 지형의 특징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전환의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 출발점은 무(無)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마오쩌둥이 지식인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문화대혁명 이전 시기에 중국이 지식인 집단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이와 동시에 그들이 생산해

Political Science (Vol. 19, No. 1, 2014), pp. 12-13.

23)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8권 제1호, 2018, 103-104쪽.

내는 담론이라는 것 자체도 매우 미약하게 생산되었다.²⁴⁾ 따라서 이 시기 중국에서 국가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에서의 지식인과 그들이 생산해내는 지식 혹은 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국가 체제 외의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복수의 지식인 그룹과 그들의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른 자연스러운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이 분화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의 논쟁의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 시행 초기 즉 1980년대에 가장 단일하고, 동질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중국의 지식인 그룹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그 이론의 정합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문화대혁명과 같은 극좌적인 노선으로의 회귀에 반대하고, 정치적 민주를 요구하며, 경제적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동질성과 집합성을 가졌다.²⁵⁾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당시의 관방 이데올로기로 선택받았던 신권위주의와 논쟁을 진행했다. 신권위주의는, 이들 주장자들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경제 발전을 정치 민주화보다 우선시하며, 이 둘의 관계를 이분법적이고 단계론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으로 인해 당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자유주의의 급진적 민주화 주장은 중국 사회에서의 권위와 질서를 와해시켜 중국적으로 현대화를 실패하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다. 이는 체제 유지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보수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두 사조사이의 논쟁은 자유와 권위, 급진과 점진 그리고 개인과 전체라는 개념을 두고 대립했다.²⁶⁾ 이 논쟁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신권위주의의 강력한 독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1949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에서 개인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자유주의가 중국의 주요 정치 사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24) 이옥연, <지식인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역할>, 전성홍 편, 《전환기의 중국 사회 I》(오름, 2004), 206쪽.

25) 샤오푹진, 서석홍, <1990년대 이래 중국 지식인의 사상 분화>, 《오늘의 문예비평》 2002년 6월호, 69쪽.

26) 馬立誠, 《最近四十年中國社會思潮》(東方出版社, 2017), pp. 11-14.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신권주의주의와의 논쟁 이후 자유주의는 1990년대 들어서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그 대체적인 방향은 온건화로 표현되고 있다. 즉 구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인한 급진적 체제 전환에 대한 현실적 우려, 중국 내 시장화 진전으로 인한 지식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해 루소식의 급진적 자유주의로부터 하이에크의 영미식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중시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바로 정치보다는 경제 영역에 치중하고, 그 방식은 보다 점진적인 온건한 자유주의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유주의 사조는 당시의 보수주의적인 시대상황에 동화되는 양태를 보여줬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자유주의 사조는 실제로는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과학과 민주를 강조했던 계몽주의적 서방 문화에 반대하는 신권위주의의 변화태인 당시의 신보수주의적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⁷⁾

이런 보수화된 자유주의는 1990년대 후반 '신좌파'라고 불리는 정치 사조와의 논쟁에 직면한다. 이 신좌파는 온건형(포스트 모더니즘 형)과 급진형(인민주의형) 그리고 신민족주의자, 포스트모더니스트, 신국가주의자 등으로 그 구성 요소에 대한 견해는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좌파는 당시 시장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당국을 비판하면서도, 기존의 경직된 사회주의적인 방식은 경계하는 이념적 스텐스를 가지는 일군의 학자들을 가리킨다. 정치 이념으로 보면 민주와 평등의 가치를 자유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서의 현대화라는 문제를 보편보다는 특수한 길로 접근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²⁸⁾

이들과 자유주의간의 논쟁은 1990년대 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은 쟁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첫째, 체제

27) 이양호,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3권 1호, 2004, 227-228쪽.

28) Fewsmith, Joseph,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217-230; 蕭功秦, <新左派與當代中國知識分子的思想分化>, 《當代中國研究》, 2002年 第1期, pp. 77-91.

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신좌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초월하는 체제를 주장한다. 즉 자유주의는 보편적인(?) 현대적 체제인 자유, 민주, 개인주의, 시장경제 등의 요소를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 반면 신좌파는 중국의 문제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문제는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추구해야할 현대성은 반서구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기존의 현실 사회주의가 아닌 제 3의 길의 제도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사회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양 그룹은 그 입장차가 분명했다. 자유주의는 중국 사회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원인을 불철저한 시장경제화와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두고, 신좌파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과정에서 다수가 희생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화 개혁을 중단하고 자유화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교환의 공정성을, 후자는 분배의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셋째, 부패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주의는 헌정과 법치가 정착되지 않고 이와 연동되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좌파는 정치 개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자유주의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유와 직접적인 민주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이러한 쟁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시기의 자유주의와 신좌파는 각각 관방화된 순차론적 인식론의 오류를 노정하고 있고 사실상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중국사회의 문제를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퇴행적 인식론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³⁰⁾

한편,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중국 지식인의 담론 지형은 또 한 번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의 현실적 근거는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그 부작용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의 공유이고, 더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후진타오 체제의 포스트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다. 즉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29) 박승현, <세계화와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대응: 자유주의와 신좌파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19호, 2006, 253-282쪽.

30) 강진석, <총론: 당대 중국의 사상 사조>, 《오늘의 동양사상》 제21호, 2010, 55-56쪽.

중국의 국력의 제고와 더불어 소득, 지역 그리고 도농격차의 확대에 대한 부작용이 동시에 광범위하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후진타오 집권을 계기로 이전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방식이 아닌 과학적 발전관, 조화사회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발전 방식이 제기되었다. 이는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비판자의 위치에 있던 신좌파를 체제 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 개념의 제출과 이의 정교화와 확산을 의도한 중국 당국의 시도는 그리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되게는 이 시도의 핵심 내용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당-국가 체제에 대한 옹호를 이어지는 논리 구조와 전개 과정이 순연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비전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 담론계는 사실상의 중국특색사회주의와 유사한 중국모델론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여줬다. 기존과는 달라진 양상은 이 중국모델론은 기존의 관방 이데올로기들이 강조하던 특수성 보다는 중국모델의 보편성과 대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 기존과는 달리 더욱 공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국내적으로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담론계는 자유주의가 주창해온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사조들이 제기하는 중국모델론 간의 논쟁이 발생했다. 2008년 이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이 논쟁은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중국모델을 둘러싼 학술회의와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확산되었다. 여전히 이 논쟁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쟁은 중국의 현실적인 부상과 세계화의 모순의 심화에 대한 중국 내부에서의 문제제기이다. 더구나 이 문제제기는 특수보다는 대체와 보편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대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중국 담론계에서 현대성의 모색을 탈 서구적인 것에서 찾으려는 사조들이 이 과정에서 일정한 연대(?)를 의도치 않게 이루게 되었다. 즉 신좌파뿐만 아니라 문화보수주의 그리고 일부 자유주의 계열의 논자들까지도 그 방점과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중국모델의 의의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³¹⁾

결국 중국몽이 제기되기 전의 중국 지식인 담론의 지형은 이미 신좌파, 무화보수주의 등이 주도하는 국가와 민족주의적 경향이 우세한 특징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물론 그 과정은 여전히 논쟁중이며, 따라서 특정한 담론 혹은 이론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그와 무관한 중국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해 그 이론적 기반이 일시적으로 취약해졌다. 이와 연동되어 그들의 기존 주장의 설득력 역시 현저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 동시에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주의 내지 신유가 등 문화보수주의자들과의 결합을 시도하기도 했다.³²⁾

3.2 중국몽 제출 이후 지식인 담론 지형의 특징

한편 상술한 상황을 배경으로 중국몽 개념은 제출되었다. 즉 당시의 시대 상황과 완전히 역행되거나 돌출적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부연하자면, 2010년 이후 전반적인 중국 지식인계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중국몽은 관방에 의해 개념화되었다는 의미이다. 그 이후 중국 지식인 담론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먼저 전반적인 특징이다. 지식인의 담론 지형이 상당히 체제 내로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국가주의적이고 보수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연동되어서 반성이나 비판적 성격은 퇴색되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자들에 따라 그 개념은 다르지만 ‘중화의 재보편화’와 문화주의의 복원, 권력-지식복합체로서의 유학의 부흥, 중국 자유주의의 ‘위기’, ‘돌을 더듬어 강을 건너는(摸著石頭過河) 시기가 종결됐다.’ 등으로 이 시기의 중국 지식인 담론 지

31) 최은진, <중국모델론을 통해 본 중국 사상계의 지식 지형>,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0권, 2011, 141-143쪽.

32) 이런 측면에서 중국 담론계의 키워드가 1980년대의 개인, 1990년대의 계층 그리고 2010년을 전후로 ‘국가’로 변화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경란,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 자유주의, 신유가》(글항아리, 2013), 38-39쪽.

형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³³⁾

다음으로, 중국 지식인 담론계의 주요 사조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좌파이다. 이들은 시진핑 체제와 ‘밀월관계’라 불릴 만큼 매우 근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이들은 기존의 중국모델론보다 추상화되고 특수화되고 내재화된 문제인 ‘중화성(中華性, Chineseness)’에 주목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시진핑 체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신발론(鞋子論)’ 즉 “신발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신어봐야 알 수 있고, 한 국가의 발전의 길은 그 국가의 인민만이 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³⁴⁾ 실제로 시진핑 집권 이후 이른바 ‘삼좌합류(三左合流)’현상이 나타났고, 이 삼좌에는 관방이 주장하는 좌파, 민간에서의 마오쩌둥 식의 좌파와 신좌파가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동시에 이들의 합류의 지향은 마오쩌둥의 유산을 계승하고, 20세기 중국 혁명의 경험을 존중하며, 서방의 길을 거절하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중요한 것은 이들 신좌파의 일부 학자들이 중국적 특수성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이전에도 추구해왔지만, 그 이 ‘특수한’ 표준의 기준을 중국 전통의 가치와 문화에 찾는 경향이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³⁶⁾ 이런 측면에서 보수주의적 경향은 강화되었고, 동시에 그 보편화와 개방성의 수준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시진핑 체

33) 전인갑, <지식 패러다임의 반전과 ‘제국몽’: 중화의 재보편화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8권, 2015, 225-259쪽; 조경란, 《국가, 유학, 지식인: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와 민족주의》(책세상, 2016), 21-66쪽; 베이징 인터뷰(2018.7.20.); 허자오텐, 임우경, <중국의 글기와 당대 ‘사상의 무의식’>, 《창작과 비평》 45권 3호, 2017, 333-334쪽.

34) 夏涵, 2013, “學者稱習近平‘鞋子論’具時代新意 鼓動人誠信.”
<http://www.chinanews.com/gn/2013/04-01/4693905.shtml>
 (검색일: 2018.10.01.).

35) 張博樹, 2018, “中國思想光譜分析.”
http://www.minzhuzhongguo.org/Main_ArtShow.aspx?AID=52548
 (검색일: 2018.10.02.).

36) 박병석, <21세기 초 중국 신좌파의 중국 정치모델론과 중화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7권 2호, 2018, 227-228쪽.

제의 성격과 가장 크게 배치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몽 이후의 대체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는 그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자오팅양(趙汀陽)과 쉬지린(許紀霖) 등이 대표적이다. 자오팅양은 ‘천하체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을 21세기 평화의 세계질서 원리로서 복원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중국의 전통에서의 천하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의 이념과 제도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³⁷⁾ 쉬지린은 ‘신(新)천하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의 지체로 천하의 질서 즉 다원적 명명질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굴기와 부상을 긍정하고, 새로운 공존과 융합의 원리로서 유교의 가치를 긍정하는 논점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다. 동시에 매우 이질적인 사상 조류인 자유주의와 유가를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³⁸⁾

셋째, 문화보수주의자들이다. 여러 종류의 문화보수주의자들 중 가장 크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들은 유교중국의 건설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이들이다. 기실 유교문화의 부흥은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된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중국몽 개념의 공식 제기와 함께 더욱 체제 내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들은 기존보다 더욱 과감한 주장들 예를 들면, 유학으로 현대 중국사회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현대의 유학화’, 사회주의 가치의 대체 내지 보완의 의미로써의 유교의 ‘공민종교화’, 당대 중국 정치 현실의 정당성 및 합법성 제고를 시도하는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능(賢能)주의’ 등을 들 수 있다.³⁹⁾

결국 중국몽 개념의 제기와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와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지식인 담론 지형이 전반적으로 보수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2012년 이후 중국몽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

37) 趙汀陽, 2017, “天下秩序的未來性”,

http://www.cssn.cn/zhx/zx_zhyj/201706/t20170629_3565234.shtml
(검색일: 2018.09.12.).

38) 許紀霖, 《中國, 何以文明》(中信出版社, 2014).

39)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조경란, <2000년대 중국의 유교부흥 현상 분석: 의미와 문제점>, 《한국학연구》 제49호, 2018, 95-119쪽을 참조 바람.

기되고, 그 이후 담론 지형의 보수화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중국몽 개념의 제기가 그 후에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몽 개념의 제기는 당국 즉 집권 엘리트층 내에서의 특정한 의도를 담은 기획과 그에 따른 인위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나 특히 신좌파나 자유주의가 유학과 접목하려는 시도가 2000년대 들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자체가 강제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 사회에서 가장 서구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가장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내에서 2008년의 류샤오보(劉曉波)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투옥 그리고 당대 중국 최초의 인권선언문이라고 평가되는 08헌장 공포라는 대단히 상징성이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화가 오히려 가속화되었다는 점도 상기 판단의 근거가 된다.⁴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현실적인 부상과 이에 대한 대내외적인 객관적 승인이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보수화와 전통주의화가 이 원인으로 인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중국몽 개념의 제기는 바로 이런 동인에 대한 집권 엘리트층 즉 관방에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꿈이며, 이것은 반드시 중국의 길을 걷고 중국의 정신을 선양하며, 중국의 힘을 결집해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중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스탠다드에 근거해서 대국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⁴¹⁾ 또 이를 상기한 '2013년 통보'를 통해 그 반서방, 반 자유주의의 성격을 구체화하여 공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물론 당-국가 체제가 온존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보다 그 경향이 강화되었을 개연성은 높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주된 동인이라고 보기에는 무

40) 조경란,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 자유주의, 신유가》(글항아리, 2013), 95-97쪽; 148-152쪽.

41) 전인갑, <현대중국의 인문담론과 중국몽: 한국의 시각>,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4, 437쪽.

리가 있다. 결국 중국 지식인계의 변화와 당국의 움직임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과 함께 제기된 중국몽이 중국 지식인의 담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다. 연구 결과, 시진핑 집권과 함께 중국 사회는 보수주의와 전통주의화가 일정하게 진전되었다고 했을 때, 중국몽은 이런 흐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즉 시간의 순서로 보면 중국몽이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 변화의 독립변수라고 볼 수 있지만, 주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역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 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의 움직임 역시 이 중국몽 담론 제기의 독립변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주된 동인은 중국의 국력 신장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부상 그리고 이에 대한 대내외적인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의 가장 큰 근거는 2000년대 들어 이미 중국 지식인 담론계에서 보수주의와 전통주의화 흐름이 존재하고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시진핑 체제에 대한 성격과 관련한 문제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주요하게 이 체제의 자율성, 내구성 그리고 이와 연동된 강압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시진핑 체제 특히 2017년부터 표면화된 2기의 권력 집중화와 反 자유주의화 현상이 특정 정치 파벌 혹은 그룹의 독자적이고 기획된 행위의 결과이고,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단방향의 움직임인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지식인을 비롯한 사회 분야 즉 아래로부터의 암묵적 혹은 소극적 방관 내지 동의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일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스로를 기존에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서 있었지만, 현재

에는 그 입장을 버리고 시진핑 체제에 대해 유보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한 학자의 진술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는 “중국 지식인들은 현재 3번째의 사상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1차는 마오쩌둥의 사상으로의 전환이고, 2차는 자유주의로의 그것이며, 3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모델론을 위시한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새로운 대안적 인식에 일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유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정서적인 반감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 시기와 같은 분권적인 체제가 과연 현재 중국의 현실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다.”⁴²⁾

둘째, 중국 지식인계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의 중국 지식인계의 동향을 요약하면 반체제적인 일부 자유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매우 깊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을 동원하여 서구사회의 우월성, 중심성 그리고 보편성을 강조하고, 반면 비 서구사회의 열등성, 주변성 그리고 특수성을 대비시키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항하고 그 해체를 시도했던 신좌파의 예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점차 중국 혹은 중화라는 자국 혹은 자문화에 대한 우월성과 중심성 그리고 보편성을 확인하고 이를 이론화하려는 경향으로 경도되고 있다.⁴³⁾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다. 주되게 이들 지식인 집단의 이론의 취약과 철저한 성찰의 부족 그리고 실천과의 긴밀하지 못한 결합,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사상과 사회의 견고함 등이 그 대표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왜 돌고 돌아서 이들은 중국의 근대의 사고 패턴으로 회귀했을까의 문제에 착목한다면, 오히려 이들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지식인과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의 세계화를 실감하게 된다.

42) 베이징 인터뷰(2018.7.20.).

43) 박병석, <20세기 말 중국 신좌파 중화성 담론의 전개, 의의 및 비평>,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6권 1호, 2017, 287-321쪽.

< 參考文獻 >

- 강진석, <총론: 당대 중국의 사상 사조>, 《오늘의 동양사상》 21, 2010.
- 박병석, <20세기 말 중국 신좌파 중화성 담론의 전개, 의의 및 비평>,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2017.
- _____, <21세기 초 중국 신좌파의 중국 정치모델론과 중화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2), 2018.
- 박승현, <세계화와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대응: 자유주의와 신좌파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19, 2006.
- 샤오퉁진, 서석홍, <1990년대 이래 중국 지식인의 사상 분화>, 《오늘의 문예비평》, 2002, 6.
- 서진영, 《21세기 중국 정치》, 폴리테이아, 2008.
- 이남주, “중국의 ‘좌우논쟁(左右之爭)’과 시진핑체제”, 20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9777> (검색일: 2018.06.10).
- 이양호,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3(1), 2004.
- 이욱연, <지식인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역할>, 전성홍 편, 《전환기의 중국 사회 I》, 오름, 2004.
- 이중화, <시진핑의 중국의 꿈과 과학적 발전관의 미래발전>, 《중국과 중국학》 23, 2014.
- 이희옥, <중국민족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중국학연구》 47, 2009.
- 조경란,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 자유주의, 신유가》, 글항아리, 2013.
- _____, 《국가, 유학, 지식인: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책세상, 2016.
- _____, <2000년대 중국의 유교부흥 현상 분석: 의미와 문제점>, 《한국학연구》 49, 2018.
- 전인갑, <현대중국의 인문담론과 중국몽: 한국의 시각>,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4.
- _____, <지식 패러다임의 반전과 ‘제국몽’: 중화의 재보편화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8, 2015.
- 주장환,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서진 전략의 배경, 내용, 전망>, 《한중사회과학연구》 12(3), 2014.
- _____,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

- 회주의사상>, 《마르크스주의 연구》 15(3), 2018.
- 지만수, <중국의 과학적 발전관의 내용과 함의>, 《아태연구》 15(1), 2008.
- 최은진, <중국모델론을 통해 본 중국 사상계의 지식 지형>, 《중국근현대사연구》 50, 2011.
- 허자오펜, 임우경, <중국의 굴기와 당대 '사상의 무의식'>, 《창작과 비평》 45(3), 2017.
-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국제정치논총》 58(1), 2018.
- 홍태영,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지식인 - 집단지성 시대 지식인의 새로운 상을 위하여>, 《현대정치연구》 6(1), 2013.
- 황재호, <신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협력>, 《전략연구》 21(4), 2014.
- Bo, Zhiyue, "Hu Jintao and the CCP's Ideology: A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9(2), 2004.
- Ferdinand, Peter, "Westward Ho-the China Dream and 'One Belt, One Road': Chinese Foreign Policy under Xi Jinping", *International Affairs*, 92(4), 2016.
- Fewsmith, Joseph,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The 19th Party Congress: Ringing in Xi Jinping's New Age", 2018, <https://www.hoover.org/sites/default/files/research/docs/clm55-jf-final.pdf> (검색일: 2018.04.19.).
- Wang, Zheng, "The Chinese Dream: Concept and Context",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19(1), 2014.
- 陳曦, "《明鏡月刊》獨家全文刊發中共9號文件," 2013, http://www.molihua.org/2013/08/9_7925.html (검색일: 2018.06.10.).
- 崔海教,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的理論威力," 2018, http://www.qstheory.cn/dukan/qs/2018-04/15/c_1122670078.htm (검색일: 2018.06.10.).
- 李斌, "習近平:承前啓後 繼往開來 繼續朝著中華民族偉大復興目標奮勇前進," 2012,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2-11/29/c_113852724.htm (검색일: 2018.06.10.)
- 馬立誠, 《最近四十年中國社會思潮》, 上海: 東方出版社, 2017.

- 劉瓊, “特寫：習近平九提“中國夢”” 2013, <http://theory.people.com.cn/n/2013/0320/c49150-20851599.html> (검색일: 2018.01.10.).
- 蕭功秦, <新左派與當代中國知識分子的思想分化>, 《當代中國研究》 1, 2002.
-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17,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검색일: 2018.02.28.).
- 夏涵, “學者稱習近平“鞋子論”具時代新意鼓勵人誠信,” 2013, <http://www.chinanews.com/gn/2013/04-01/4693905.shtml> (검색일: 2018.10.01.).
- 許紀霖, 《中國, 何以文明》, 北京: 中信出版社, 2014.
- 張博樹, “中國思想光譜分析”, 2018, <http://www.minzhuzhongguo.org/MainArtShow.aspx?AID=52548> (검색일: 2018.10.02).
- 趙汀陽, “天下秩序的未來性,” 2017, http://www.cssn.cn/zhx/zx_zhyj/201706/t20170629_3565234.shtml (검색일: 2018.09.12).

< Abstract >

‘Chinese Dream’ and Intellectual Discourse Change in China: Directions and Causes

Joo, Janghwan

This article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Dream on the intellectual’s discourse with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Chinese society has progressed to conservatism and traditionalism after the administration of Xi Jinping. Next, Chinese Dream was a factor promoting this flow. In other words, in terms of time, Chinese Dream is an independent variable of Chinese intellectual discourse topography change, but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the main one. In contrast, the movement of Chinese intellectual discourse topography since 2000 has been on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Rather, the main driver is the rise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the rise of national power,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approval of it.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is judgment is the fact that the conservatism and the traditionalism flow existed and strengthened in the Chinese intellectual discourse in the 2000s.

Key words: Chines Dream, Xi Jinping' Leadership System, Chinese Intellectuals, Conservatism and Conventionalism, New Leftist, Liberalis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01.20	2019.03.08	2019.02.26	2019.03.10	2019.03.31